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첫 삽'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음 2월 6일) 제29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대형산불 피해 주민돕기 적극 나서

전북도, 정부 방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도,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 성금 기탁·소방인력 보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서 6000만원 재난재해기금 집행키로

전북도가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대규모 산불 피해발생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고, 구호물자와 소방인력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도는 7일 이번 산불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비롯해 각종 구호물품을 화재 발생 지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인력도 즉각 파견했다.

도내 소방헬기 1대와 펌프차 등 차량 15대, 소방대원 96명이 각각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지역 등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민가보호와 산불화재 진압,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 급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 및 14개 시·군 자원센터와 협력해 산불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현장구호 인력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이동밥차, 세탁차량 운영 등 장비와 물자,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커다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 지사는 협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해 경북 3,000만원, 강원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집행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원계획안을 최대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주민 지원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설치되는 개표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7일 전주시 덕진구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광역권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들어선다

부안군, 우선협상대상지 선정

부안군에 방사능 재난 발생 때 총괄 지휘를 맡을 광역권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모한 '한빛권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센터 건설 사업 후보지의 우선협상대상으로 부안군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그간 전북도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이원택 의원, 부안 권익현 군수와 TF팀을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건의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에도 보상받지 못한 부안군민에게, 이번 광역방재센터로 부안군민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생애 첫 투표'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것은?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도교육청, 연수 실시

신청·학습기간 11월 30일까지, 정치 참여의식 등 교육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전북 지역 고3 학생 4,595명(9.2%)이 처음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찾아가는 선거교육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신청 및 학습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바람직한 선거·정치 참여의식 등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 반영 지원, ▲학생 참여 활성화,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위탁사업,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먼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시민적 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및 협업, 문제해결력 등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도적·직접적 참여 활성화 지원, 학교 내 학생 자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생 참여 예산제 등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으로는 *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운용 기준 등에 대한 학생 교육 지원, *주요 개정 사항 및 운용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학생 교육 자료 안내, *학생의 출마·당선, 정당활동에 따른 출결, 학적 처리 등 학생부 기록 기준 마련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에 편성할 것과 단위학교에서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학생 참여와 의견 반영 등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생 주권자 의식 함양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서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각각 하향됐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북 학생 유권자수는 총 4,595명이다. 또한 6월 1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학생 유권자수는 총 8,486명이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잼버리 1년 연기되나

국가 간 백신 불평등으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데 제약

도,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건의키로… 4월 이사회서 결정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오는 2023년 8월 개최 예정인 새만금잼버리의 1년 연기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가 새만금잼버리 연기를 건의하면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사회에서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조직위원회의 이번 연기 건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심화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또한, 내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면 국가 간 백신 불평등으로 각국 청소년이 모두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고, 세계잼버리의 프로그램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등 성공적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관계로
3월 9일자 신문은 쉽니다.